



사라져가는 전통 공연예술의 이야기를 붙잡다

이숙희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필자가 지금까지 구술채록·연구한 구술자는 모두 다섯 분으로, 궁중의 마지막 무동(舞童)이자 아공(樂工)이셨던 성경린 선생님(2003년), 가야금 연주와 춤 그리고 노래에 두루 능하셨던 진주의 예인 김수악 선생님(2004년), 진도 무속인 채정례 선생님(2005년)과 진도 다시래기를 전승하시는 김귀봉 선생님(2005년), 편종, 편경을 만드시는 악기장 김현곤 선생님(2007년)의 구술을 들었다. 한평생 전통 공연예술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신 다섯 분과 진행한 구술채록 연구의 과정을 구술자 선정 기준, 결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기대했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필자가 성경린 선생님의 구술을 채록 연구하게 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였다. 한국 근현대예술사의 인프라



원로 국악인 성경린 선생

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현대예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활발히 활동했던 전 예술 분야의 인물들을 구술자로 선정했는데, 성경린 선생님은 공연예술 분야의 원로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성경린 선생님은 일평생 무동, 아공, 혹은 행정가로 활동하시면서 이왕직아악부, 구왕궁아악부, 국립국악원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

이미 구술자가 성경린 선생님이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다음 단계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성경린 선생님께서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셨고, 또 구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구술연구를 위한 기초 준비로서 인적 사항과 활동 경력을 정리하기가 쉬웠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술채록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영상 촬영, 구술의 녹음과 녹취 등 방법상의 문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뒷받침해주었고, 필자는 구술채록 연구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린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셨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강 상태와 구술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는 구분되어야 했다. 선생님은 많은 부분 기억을 못하셨다. 둘째, 구술자와 구술채록 연구자와의 관계다. 성경린 선생님은 당시 필자가 근무하는 국악연구실 옆의 원로사범실에 계셨다. 직장 내의 어른이시고, 원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필자는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곤란하거나 어려운 질문에 선생님께서 대답을 못하실 경우, 필자가 먼저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이끌었던 기억이 있다. 셋째,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기억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말씀하실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궁중음악은 거의 멸절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는 궁중음악 문화의 실체가 없었다는 말이다.

지금도 가끔 성경린 선생님 구술채록문을 읽어보면 기대했던 내용이 구술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구술채록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구술자와의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구술채록 연구다

김수악 선생님은 구술채록 연구 사업에서 만난 두번째 구술자였다. 필자가 구술자를 직접 추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김수악 선생님을 구술자로 추천한 이유는 조선후기 교방(敎坊)의 예술교육 전통을 구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방은 지방 관아의 예술교육 기관이자 공연 기관이다. 그러나 교방 제도가



조선후기 교방(敎坊)의 예술교육 전통을 구술해준 김수악 선생

단절된 지 오래되었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 따라서 교방의 교육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김수악 선생님의 구술을 통해, 권번(기생들의 조합) 이전에 존재했던 여성 예술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교방의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교방과 관련하여 특별히 김수악 선생님을 구술자로 선정한 것은 진주라는 지역과도 관련 있다. 교방에 관한 기록이 읍지 등에 드문드문 있지만, 그 실체를 밝히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데 비해 진주 교방에 관해서는 진주 교방의 악무를 기록한 정현석(1817~1895)의 <교방가요>가 있고, 진주 권번에 교방 출신의 관기 최완자(1892~1969, 본명 崔順伊)라는 분이 계셨으며, 최완자에게 교육을 받았던 김수악 선생님이 계시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술자의 선정 문제 외의 다른 절차는 1차 때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김수악 선생님의 구술채록은 교방의 예술교육에 관한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구술채록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교방의 교육제도보다는 김수악 선생님의 예술 세계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더 컸다. 그 이유는 교방에 대한 김수악 선생님의 인식이 크지 않았고, 교방 제도가 소멸된 지 오래 되어 그 자취가 크게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방 관련해서는, 최완자에 대한 구술을 통해 예술교육 기관으로서의 교방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고, 부수적으로 권번의 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김수악 선생님은 천부적으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집안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았고, 예술을 애호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악무를 익혔다. 따라서 김수악 선생님은 자신의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이 있는 분이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김수악 선생님의 구술자료에서 진주검무나 교방굿거리 춤에 대한 내용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 구음, 가야금 연주, 무용 등 김수악 선생님의 예술세계와 악·가·무에 대한 것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구술채록 당시 필자는 진도에 있었고, 김수악 선생님은 진주에 계셨다. 진도에서 진주까지는 교통도 불편하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구술채록은 겨울에 진행했는데, 선생님과 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눈길을 급하게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다. 구술채록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



무속인 채정례 선생

술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술자와 구술채록 연구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충실한 구술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구술채록 연구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생각이다.

구술자의 심한 사투리가 복병이 되다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에 근무할 때, 필자는 진도 무속인인 채정례 선생님의 삶과 예술을 구술채록하는 연구 사업을 계획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진도에는 씻김굿 등 무속음악 문화가 발달해 있다. 진도 무속인의 구술채록을 계획하며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기예능보유자이셨던 박병천(1932~2007) 선생님을 구술자로 선정하지 않고 채정례 선생님을 선정하는 것은 진도씻김굿을 비롯한 진도의 여러 무속의식과 그에 수반되는 악무를 가능하면 현지에 전승되는 원형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채정례 선생님 굿의 음악은 예술화된 무속음악이 아니라 생활 무속음악이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채정례 선생님의 친정이 무속인 집안이었고, 시택 또

한 무속과 무관하지 않은 집안이다. 삶의 환경이 온통 무속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진도’라고 하면 씻김굿을 떠올리지만 진도에는 씻김굿 외에도 무수한 무속의식이 있고, 채정례 선생님의 구술을 통해 진도의 무속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

1991년에 <뿌리깊은나무>에서 채정례 선생님의 구술을 채록하여 단행본 <이 짝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민중자서전 20)를 발간한 일이 있다. <뿌리깊은나무>의 ‘민중자서전’ 시리즈는 구술채록 연구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구술채록 연구자들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행본에는 구술자의 구술을 서술식으로 정리해놓았다. 채정례 선생님 구술의 초점은 민중자서전이라는 시리즈 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무속의식이나 그에 수반되는 음악 문화보다는 무속인 채정례라는 한 인간의 삶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구술채록을 할 때는 채정례 선생님의 삶뿐 아니라 씻김굿을 비롯한 진도의 여러 무속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무속의 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다. 또한 별도의 운문 없이 구술자와 구술채록 연구자의 대화를 그대로 채록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뿌리깊은나무>에서 이미 채정례 선생님의 구술을 책으로 냈음에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또 다시 채정례 선생님의 구술을 채록한 것은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일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구술채록 했을 때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고, 한 인간의 삶의 변화 과정을 시차를 두고 기록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정례 선생님 구술채록 연구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진도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기에 구술채록 연구를 도와줄 연구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이다. 연구계획서의 작성에서 책의 발간까지 필자 혼자 힘으로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촬영을 했지만 녹음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테이프를 갈아야 할 때는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했다.

채정례 선생님 구술채록 과정에서 발생했던 또 한 가지 문제는 필자가 구술자의 전라도 사투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점이다. 모든 질문에 대해 무슨 뜻인지 확인하는 반복 질문을 해야만 했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도 있었다.

구술자뿐 아니라 주변 인물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김귀봉 선생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기예능보유자다. 김귀봉 선생님의 구술을 채록 연구하게 된 목적은 진도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도에 중요하게 전승되는 전통예술 중의 하나인 진도다시래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남기는 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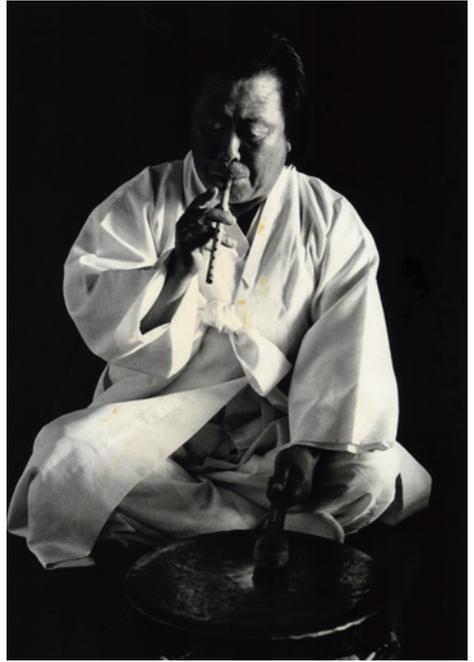
상례에 수반되는 진도다시래기는 진도의 대표적인 공연문화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전승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여 관련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진도다시래기를 근래에야 다시 복원한 까닭에 레퍼토리가 뒤섞여 각 공연문화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진도다시래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다.

김귀봉 선생님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조금 떨어진 상만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뵙기도 쉬웠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행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김귀봉 선생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래기 기예능보유자이시지만, 씻김굿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다. 따라서 진도 다시래기에 대한 구술 외에 진도 씻김굿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구술해주셨다. 특히 무속인인 채정례 선생님과 달리 김귀봉 선생님은 악사이기 때문에 씻김굿의 음악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김귀봉 선생님의 사모님은 구술채록 당시 몸이 편찮으셨다. 김귀봉 선생님을 방문하면 조용히 웃는 낯으로 맞이해주기는 하셨지만 남편인 김귀봉 선생님께서 무속 활동에 대해 구술하시는 것을 편치 않아 하셨다. 이러한 사모님의 태도가 구술채록을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영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구술채록에 있어서 구술자뿐 아니라 구술자의 주변 인물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진행 과정을 점검해주는 감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악기에 관한 책은 많지만, 국악기 제작에 관한 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와 같이 악기 제작에 관한 문헌이 있으나, 제작 과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 기록 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악기 제작의 학문적 기초 역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국악기 제작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구술



진도다시래기 기예능보유자 김귀봉 선생

채록을 통해 1차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종과 편경 제작자인 김현곤 선생님의 구술을 채록하기로 했다.

편종과 편경은 타악기이지만 음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음 등 음악의 기초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편경의 경우 주재료인 돌의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기본음의 역사적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편종과 편경은 가장 근본과 기초가 되는 악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편종과 편경은 궁중 음악의 연주에만 필요하므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하면서도 악률의 원리에 따라 제작하는 편종과 편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유일하게 현존하는 편종, 편경 제작자가 바로 김현곤 선생님이었다.

김현곤 선생님의 구술을 통해 편종과 편경의 제작과 관련하여 척도, 조율, 재료, 제작 순서 등 가능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했다. 소리를 내는 부분인 종과 경뿐만 아니라, 악기 틀의 공예적인 측면, 주물 공정 등 매우 복잡한 종의 제작 과정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다. 구술채록 연구 중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김현곤 선생님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편종, 편경 악기장 김현곤 선생

김현곤 선생님은 편종, 편경뿐 아니라 전반적인 악기의 제작 원리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는 우리나라 서양악기 제작 초기사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서양음악이 오늘날 우리 음악문화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서양악기 제작의 역사가 기록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것은 뜻밖이었다.

편종, 편경 악기장 김현곤 선생님의 구술채록은 한국문화예술회원의 ‘전통예술 보존연구사업’에 선정되어 필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구술채록 연구였다. 이 구술채록 연구는 개인이 주관하여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진행한 구술채록 연구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절차와 형식은 기존의 체제를 따랐지만, 연구계획서의 작성, 인터뷰, 녹취, 검독, 책의 편집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진행했는데, 구술채록 연구가 끝났을 때쯤 진행 과정을 점검해주는 감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구술채록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관, 활용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구술채록 연구 과정에서 녹취문, 녹음자료, 영상자료 등 세 종류의 자료가 발생한다. 필자가 진행한 구술채록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보존, 활용되고 있다.

성경린 선생님과 김수악 선생님 구술채록 연구 사업의 녹취문은 책자 20부를 발간하여 구술자와 구술채록 연구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연구소 등이 소장하였다.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및 녹취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 홈페이지 구술아카이브의 ‘구술로 만나는 한국 예술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진행한 채정례 선생님과 김귀봉 선생님의 구술채록 연구 사업의 녹취문은 책자(비매품)로 발간하여 전국 국공립도서관과 연구자들에게 배포했다. 녹음자료와 영상자료는 국립남도국악원의 자료실에 보관했고, 여건상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김현곤 선생님 구술채록 연구 자료는 녹취문과 녹음자료의 두 종류가 있다. 녹취문은 출판사에서 책으로 발간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술채록 작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녹음 자료는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구술채록 연구의 결과물의 보관과 활용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 첫째, 공개의 문제에 있어서 구술자나 구술채록 연구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공개하기가 어렵다. 둘째, 보관에 있어서도 보관할 장소나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구술채록 연구 자료가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구술채록 연구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현지조사와 다르고, 기록 방식에서 조사 보고서와 다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직하다. 그런 점에서 구술채록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의 보관과 활용 역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글쓴이 이숙희 경북대학교 및 동대학원 국악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재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있으며, 저서로는 <조선후기 군영악대-취고수·세악수·내취> 등이 있다.